

광주의 AI·전남의 에너지 융합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광주전남특별시

초광역 메가시티로 비상

〈2〉청년 떠나는 도시엔 미래 없다

청년이 정착하고 꿈꾸는 도시
AI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수도권 넘는 고용 생태계 구축

광주·전남의 청년이 등 떠밀리듯 고향을 등지고 수도권으로 향하는 ‘엑소더스’가 멈추지 않고 있다.

양 시도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을 맴도는 근본적인 원인 역시 세금을 내고 지역을 지방할 기업과 사람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단순히 행정 구역을 합치는 물리적 결합에 그친다면, ‘기난한 두 집 살림을 합치는 것’에 불과하고 지방 소멸의 시계를 늦출 수 없다고 진단한다.

통합 광주전남특별시의 성공을 가를 제1의 조건은 청년이 정착하고 꿈꿀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전문가들은 광주시의 첨단 AI(인공지능) 기술과 전남도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결합한 ‘AI-에너지 융합 산업’만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뚫고 기업을 유치할 유일한 미래 먹거리이자 일자리 보고(寶庫)라고 입을 모은다.

광주시가 보유한 ‘AI 인프라’는 고부가가치 일자의 산실이다. 광주 첨단3지구의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과 광주과학기술원(GIST)을 중심으로 구축된 연구개발(R&D) 생태계는 이미 준비를 마쳤다.



대한민국 대도약, 광주·전남 행정통합으로 진짜 시작!

13일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사회단체 범도민 결의대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재광〉

최근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고성능 AI 반도체 첨단 패키징 거점과 세계적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 ARM의 교육기관 설립 논의는 단순 생산직이 아닌, 지역 공대 졸업생들이 선호하는 반도체 설계·데이터 분석 등 ‘연구·전문직 일자리’를 만들어낼 핵심 동력이다.

하지만, 첨단 기업 유치의 최대 걸림돌은 전력 공급이다. 이 빈틈을 전남도의 ‘에너지 심장’이 완벽하게 메운다.

전남도는 신안 해상풍력과 영암·해남 태양광 발전 단지 등 압도적인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구급, 애플,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공급망에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의 최적지다. 전력난에 허덕이는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용인)가 가질 수 없는 호남만의 강력한 무기다.

통합 정부는 이 두 강점을 결합해 ‘에너지 자립형

AI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

전남의 바다와 들녘에서 생산한 저렴한 청정한 에너지를 직통으로 공급받아 광주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와 패키징 공장이 가동되는 구조다.

이는 탄소 중립 규제를 해결하려는 글로벌 기업들을 유인할 강력한 장점이다.

기업 유치는 곧 일자리를 창출로 연결된다. 광주·전남에는 데이터센터 운영 엔지니어, 신재생에너지 관리 전문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미래 인재 개발 잠재력이 풍부하다.

산업 생태계의 연결을 통한 기존 제조업의 고도화도 일자리 지키기의 핵심이다.

광주의 미래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술과 전남의 이차전지 소재 산업을 잇는 ‘초광역 모빌리티 벨트’는 R&D부터 부품 생산, 완성차 조립으로 이어지는 완결형 가치사슬을 완성한다.

행정 장벽으로 단절됐던 산단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이면 기업 간 기술 협력이 가속화되고, 이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 확대에 이어진다.

일자리 핵심인 ‘인재’를 지키기 위한 교육 혁명도 병행되어야 한다. GIST, 전남대, 한국에너지공단(KENTECH)을 잇는 ‘반도체-에너지 연합 대학’ 체제를 구축해, 지역 대학에서 길러낸 인재가 지역 기업에 취업하고 정주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호남 최대 규모의 기업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통합 특별법에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파격적인 세제 혜택, 정주 여건 개선 지원을 명시해 기업과 사람이 모이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미래 먹거리는 지역 청년들의 발돋움이어야 한다. 광주의 기술력과 전남의 자원이 만나 기업을 부르고, 그 기업이 청년을 부르는 선순환. 2026년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지향해야 할 경제 비전의 종착점이다.

현장의 전문가 역시 행정통합이 가져올 산업적 시너지에 주목하고 있다.

오상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은 “행정통합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그 경제 안에 사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며 “그동안 행정 구역이 나뉘어 있어 통합적 시너지를 만드는 데 걸림돌이 돼 온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오 단장은 이어 “광주시가 주도하는 AI 산업과 전남도가 보유한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그리고 향후 구축될 컴퓨팅 센터 등이 결합하면 막대한 시너지를 낼 것”이라며 “이러한 환경이 조성돼야 타지역 기업들이 찾아오고, 자연스럽게 양질의 새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구조가 된다. 여기에 AI 인재 양성 사다리까지 완성되면 그 효과는 배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중일 3국 소통하며 협력…대북정책 긴밀한 공조”

한일정상회담 합의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한일정상회담에서) 동북아 지역의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나라현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회담을 한 뒤 가진 한일정상 공동언론발표에 나서 회담의 내용에 대해 이같이 소개했다.

최근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첨예해지는 가운데 한중일 3국의 협력 가능성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이번 메시지가 더욱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또 “(한일 정상은)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한

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뜻을 함께했다”고 전했다.

나아가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언급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1942년 일본 조세이 탄광에서 183명의 한국인과 일본인이 수몰 사망한 사고가 있었고, 80여 년이 지난 작년 8월에서야 유해가 발견된 바 있다”며 “양국은 동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제 사항에 대해서는 당국 간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 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국 관계발전과 관련해선 “그동안 정착시켜 온 서를 외교의 토대 위에 미래지향적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 지식재산 보호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하기로 했다”며 “저는 출입국 간소화, 수학여행 장려 등과 함께 현재 IT 분야에 한정된 기술자 격 상호인정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스캠범죄를 비롯한 초국가 범죄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우리 경찰청 주도로 발족한 국제공조 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기로 했고, 양국 공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합의문도 채택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김 총리 “통일교·신천지 철저히 수사…사이비·이단 척결해야”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통일교, 신천지 등에 대한 철저한 합동수사와 함께 모든 부처가 각각의 영역에서 사이비·이단의 폐해 근절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사이비 이단은 척결해야 할 사회악”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그는 “정교유착의 부정·불법이 국정 농단의 거름이 됐고, 해외에서도 각종 범죄와 불법에 연루돼 국격 파괴의 공적이 됐다”며 “이대로 두면 심각한 국가적 폐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정교유착 의혹’ 특검 출범 전에 검찰·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으며, 지난 6일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7대 중단 지도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사이비 이단 종교에 대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너무 오래 방치해 폐해가 매우 크다”고 했고, 종단 지도자들도 “통일교·신천지 등 사이비 이단 종교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며 해산을 요청했다.

이어 김 총리는 “응급환자 이송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며 “그러나 골든타임을 놓쳐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명 존중의 가치를 국정 중심에 둔 이재명 정부는 현장 관계자, 전문가들과 치열한 논의를 거쳐 응급이송체계 개선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며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양 기관 간은 물론 지방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72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6]

www.kwangshin.ac.kr

For the Lord
To the World
주님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2026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편입생모집

대학원 추가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성경연구학과(Th.M.)	○
		신학과(Ph.D.)	○
		성경연구학과(Th.D.)	○
		사회복지학과(D.S.W.)	○
일반대학원	박사	코칭심리학과(D.Psy.)	○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
		심리디지털융합학과(D.Psy.)	○
		유아교육학과(M.Ed.)	○
		상담심리치료학과(M.A.)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가족상담청소년학과(M.A.)	○
		코칭심리학과(M.Psy.)	○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M.A.)	○
		재활심리치료학과(M.A.)	○
		사회복지학과(M.S.W.)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
		한국어교육학과(M.Ed.)	○
국제대학원	석사	휴먼서비스교육학과(M.Ed.)	○
		실용음악학과(M.A.)	○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6. 1. 20.(화) ~ 27.(화)
- 전형일: 2026. 1. 29.(목)

학부 편입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정원내	정원외
인문	신학과	○○	○
	한국어교육학과	○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	○
	유아교육과	○	○
예능	음악학부	○○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6. 1. 5.(월) ~ 19.(월)
- 전형일: 2026. 1. 22.(목) 오후 2시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와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 36

입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 / 대학원 0621 605-1115